

## 白頭山에 대한 小考



장 태 현  
청주대학교 이공  
대학 조경학과 교수

신년 벽두에 白頭山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하면서도 울렁대는 가슴은 처음 등정하던 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다.

90년 8월 이후, 지난 '96년도만 제외하고 여섯 번을 오르면서도 그때마다 설레는 가슴은 여전하였다.

정상에 오르기 전 천문봉 밑 기상침에서 내려다 본 白頭山 자락의 자연림은 끝이 없는 樹海였고, 간간이 떠다니는 듯한 구름의 그림자는 영락없는 녹색 바다 속의 암초 같았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이렇게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에 매혹되어 매번 오를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를 하곤 하였는데, 빠르게 수시로 변하는 경치는 언제나 탄성과 경이의 연속이었다.

안개 속에 젖은 돌길에 미끄러지며 차오르는 숨길도 가눌 수 없이 천문봉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天池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서, 아마도 우리 민족만이 느끼고 통할 수 있는 감격이리라. 남쪽으로 바라다보면, 백두봉(2,749.2m), 삼기봉(2,670m), 고준봉

(2,711m), 자하봉(2,618m) 등 모두 17개의 봉우리가 천지를 에워싸며 어깨를 견주어 장관을 이루고 천태만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 웅장한 규모에 가슴 설레게 된다.

순간순간 변하는 천지주변의 모습은



수천 가지의 감동을 연출할 수 있는 무대배경과 같았고, 지나가는 구름의 그림자는 화폭변화의 숙련된 연출자와 같았다.

영험한 장소에 감히 오래 머무르는 것 자체가 부정이나 탄 듯 두렵기만하고, 현실로 인정되지 않는 흥분의 연속은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백두산은 우리민족의 발상지로서 단군이 誕降한 성지로 신성시되어왔으며, 정상의 龍王潭 천지는 한민족의 고향이며 우리 얼의 元泉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다.

대동여지전도의 跋文이나 1496년 발간된 동국여지승람에도 “백두산은 조선산맥의 祖山이 된다. 이 산은 모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2백리요, 가로는 천리에 뻗쳐있다.

그 꼭대기에 못이 있는데 둘레가 80리다. 그 못의 물이 남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동으로 흘러 두만강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 역시 고서문헌에 백두산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 한다. 『山海經』에는 “머나먼 곳에 산이 있는데 不咸이라고 한다.” 그래서 周·泰시기부터 唐朝에 이르기까지에는 시대별로 “불함산”, “蓋馬大山”, “徒太山”, “太白山”이라 불렀고 金朝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長白山”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한다.

그후 清朝는 이곳을 왕조인 愛親覺羅



천문봉정상

의 발상지라 숭배하여 수시로 시찰과 산신제를 지내게 하였다 한다.

이러한 양국간의 미묘한 국경문제를 청조 때인 1712년 5월 15일 양국 대표가 백두산에 올라 회담한 결과 백두산 산정 동남방 약4km 해발2200m지점에 우리민족의 한이 서린 白頭山 定界碑를 세우게 된다.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을 한·중 국경선(西爲鴨綠東爲土門故於分水嶺上勒石爲記)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으로 실로 어이없게 백두산 천지는 우리의 국경밖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뒤늦게 이에 놀란 우리 조정과 백성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라는 빌미를 잡고 약25년동안 몸부림쳤으나 역부족이었고, 1909년 일제와 청나라간에 소위 “간도협정”체결로 탈

취당하는 과정을 겪게 되며 그계기는 백두산 정계비에 있었던 것이다.

그후 1970년경 중국은 북한 측에 한국 전 참전대가로 삼지연에 이르는 백두산 남쪽 산록까지 양도를 주장하자, 북한측은 김일성 집단의 입지를 강조하며 대한 압록강상의 일부 河中島를 중국측에 양도하는 대가로 오늘의 백두산 천지의 반쪽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분할과정을 그곳 조선족들에게 듣게 된다.

따라서 백두산 정계비는 국경선 표석터로서 그 가치를 상실하고 실로 260여 년만에 천지의 반쪽이나마 되찾게 되었으니 실제로 천지의 면적은 우리측이 5,882km<sup>2</sup>로서 중국측의 3,918km<sup>2</sup>보다 약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를 실천에 옮겼던 당시 조선족 자치주 州長의 동상은 연길시 숲속에서 오늘날까지도 동족들의 추모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백두산 천지 분할의 실상을 알고나면 너무나 큰 실망과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고조선때나 고구려 발해때의 우리 국경선은 백두산을 지나 멀리 흑룡강성까지 우리의 땅이었었다.

이는 역사적 문헌이나 문화 유구에서도 오늘날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현실을 잊고 우리의 기존 정서와 일방적 희망의 애국심만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 측이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만 통일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대로 천지주변의 국경 표기에 대한 시

비가능성은 지금부터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속성상 국토확장에 대한 집념은 역사적으로 양보한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55개의 변방 소수민족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실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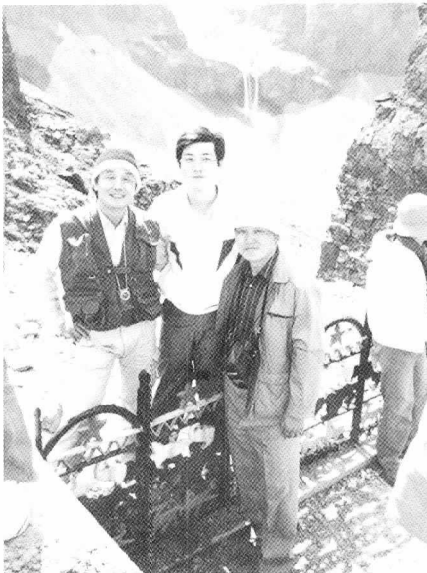
'90년도 8월 11일 처음으로 天文峰에 올랐을 때의 가슴 터질 듯한 감격속에는 그러한 분할과정을 되씹어 볼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저 오래 머물며 벽찬 감동 속에 묻혀 있고만 싶었다.

그러나 '91년도 "세계 한민족 과학자 대회"의 延吉市 행사때, 참석했던 북한의 학자들과 함께 오르기로 약속되었으나 어느 사유였는지 그들은 장백폭포를 지나 천지에 올랐고, 우리 대표들만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아마도 그들은 천지의 분할과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하였는지 참으로 의미 있는 장소에서의 시간을 놓치게 되고 말았다.

장백폭포 밑에서 다시 만난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삼지연에서 함께 올라 정상을 밟아보자며 그렇게 약속하였건만 그들은 오늘날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다.

그후 연변 자치주 安圖縣의 주문으로



세계 한민족 과학자 대회에 참가하여



백두산 첫등정때  
樹海의 모습

白頭山 總體開發計劃에 참여하게 되자 현지 답사차 백두산의 북쪽자락은 거의 훑어보게 되었다.

남쪽 백두산 자락까지 북한 학자들과 함께 답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북한과의 접경지대인 쌍두봉 국경 검문소에서부터 양강댐 주변까지 원시림을 헤치고, 영하 20℃ 이하의 강풍을 맞으면서도 민족의 聖山을 가꾸어보려 하였으나, 그 역시 통일만큼이나 힘든가 보다.

결국 중국 쪽의 백두산 지역만 기본계획 보고서로서 끝맺음하게 되었으니 어느 세월에도 남쪽까지 이을 수 있게 될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처음 백두산에 올랐을 때에는 그 웅장한 경관에 압도당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역사에 대한 남다른 감회에 울적하였으나 지금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하여 또다른 집념을 갖게 하는 곳이

백두산이 아닌가 한다.

기구한 운명의 우리 민족으로서, 분명 오늘날은 적이기도 하고 동족이기도 한데, 가장 공동체 의식을 갖출 수 있으며 서로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이는 민족과 국토의 통일과정에서도 백두산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백두산은 이미 민족정서의 대상이나 자연환경 보전으로서의 세계적인 유산으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터전으로서, 중국과의 “땅” 문제로 대두될 현실적인 문제의 현장으로서도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생각이 식지 않는 한 장백폭포의 그 우렁찬 소리는 가슴을 울렁이게 하고 우리의 민족을 부르고 있는 듯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귓전을 울리고 있다.